

선형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우울 변화에 관한 종단연구 : 변화경향과 개인차에 대한 성별 · 부모 · 또래 · 교사 요인 검증

조 정 아*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우울수준의 변화 경향을 추정하고, 변화에 있어서 개인차에 대한 부모 · 또래 · 교사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검증을 위해서 한국청소년패널자료의 중3, 고1, 고2, 고3의 총 4년간의 종단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청소년의 우울 수준은 중3시기부터 고3시기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3시기의 우울 초기치에는 성별, 부모애착, 부모의 학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의 중3시기(초기치) 우울 수준이 더 높고, 부모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은 낮고,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우울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기치를 통제한 상태에서 우울수준의 변화에 미치는 부모 · 또래 · 교사 효과를 검증해본 결과 성별, 부모의 학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우울 수준을 낮출 있는 개입 방안과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에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 우울, 부모애착, 부모의 학대, 또래애착, 교사애착, 다층모형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BK사업단 박사후연구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신체적, 대인적, 인지적, 환경적 변화 및 스트레스의 증가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시기이다(Schonert-Reichl & Muller, 1996).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은 매우 다양한데(구자경, 2004) 이중에서도 특히 정신건강의 내면화된 문제행동으로 구분되는 우울(오경자, 하은혜, 이해런, 홍강의, 2001; Achenbach, 1991; Mash & Barkely, 2001)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존의 전국 단위의 조사 결과를 통해 청소년이 경험하는 우울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8년 자료에 따르면 정신건강상 문제로 진료를 받는 청소년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즉, 2004년부터 2007년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진료건수 추이를 보면 ‘우울증 에피소드’의 경우 45,929건에서 91,011건으로 약 200%정도 증가했으며, ‘재발성 우울성 장애’의 경우 2,853건에서 4,686건으로 164% 증가하였다. 또한 1997년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울증 역학조사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15세~24세 청소년 집단의 경증이상 우울증 발생률이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중증 이상의 우울 증세를 보이는 청소년은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우울 등의 내면화된 정신건강 문제행동은 자학적 행동, 비행, 공격적 행동의 외현화된 형태의 문제들로 표출(Chiles, Miller, & Cox, 1980)되기도 하며, 우울증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20~30%가 문제 행동을 한다(Craighead, 1991). 또한 청소년 시기에 경험한 우울증은 향후 낮은 건강수준, 작업능력의 감소, 의료 이용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며(Keenan-Miller, Hammen, & Brennan, 2007),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곽금주, 문은영, 1993; 김정원, 1993)로서 검증되어 왔다.

이처럼 청소년의 우울은 수준의 심각성 뿐만 아니라 자살이나 비행과 같은 청소년 시기의 심각한 사회 문제의 원인과 성인이 된 후의 건강이나 개인적 성과에도 작용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청소년의 불안·우울 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우선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성별과 학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현숙, 1989; 최성순, 2001; 구자경, 2004;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윤혜미·박병금, 2005; Mash & Barkley, 2001; Nolen-Hoeksema, & Girgus, 1994).

또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검증되어왔다(이옥석·안정자, 1996; Buamrind, 1971; Bowlby, 1969) 부모와의 관계 중에서도 특히 부모에 대한 애착¹⁾(이하 부모애착)은 청소년의 자기정체성 형성과 평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것은 다시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ilknsnson, 2004). 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영향력은 아동기에 비교해서 볼 때 청소년기에 와서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는 있겠지만, 청소년기에 부모는 자녀에게 정신적인 지지자 역할과 함께 자녀의 올바른 행동에 대한 조언자가 되고 청소년들의 자아개념 형성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Hay& Ashman, 2003).

최근 국내외 연구들을 통해 청소년기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ssau(2004)는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 때문에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상 문제에 매우 취약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 부모애착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여러 연구들(유은희 1991; 이은경 1992; 이희영·최태진 2004; 지수경 2001; Kalsner & Pistole, 2003; Kenny & Donaldson, 1992; Lapsley & Edgerton, 2002)에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부모애착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우울·불안·소외감 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수진 2000; 주현정 2001; 최정욱 2000; 허나원 2001; Kobak & Sceery, 1988; Torquati & Vazsonyi, 1999).

그런데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에는 부모애착인 긍정적 측면 이외에 부정적 측면인 부모로부터의 학대 요인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이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는 반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1) 애착연구 초기에는 주로 영아와 양육자 사이에 형성되는 애정적 유대관계만을 의미하였으나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이 전 생애를 통하여 지속되고 성장과정을 통해 가족 이외의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애착이 형성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애착이론은 영아와 양육자 사이의 애정적 유대관계를 넘어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부모 및 또래관계를 설명하는 강력한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청소년이나 성인의 애정관계를 설명하는 기제로서도 활용되고 있다(Ainworth, 1989; Hazan & Shaver, 1987; Kirkpatrick & Davis, 1994; 황창순, 2006 재인용)

욕설을 듣거나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기 자녀의 우울·긴장은 증대되며, 부적응 행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박재산·문재우, 2006) 또한 부모의 부적절한 훈육, 감독 소홀 등과 같은 부적절한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비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성혜, 1999; 권재환·이은희, 2006)

또래관계 역시 청소년의 우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증되어 왔다(구자경, 2004; Asher, Parkhurst, Hymel, & Williams, 1990; Vosk, Forehand, Parker, & Richard, 1982). 즉,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또래가 별로 없는 청소년의 경우 정신건강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래관계가 특히 청소년기에 더욱 중요한 이유는 청소년기는 가족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또래 집단에 상대적으로 강한 애착을 보이는 발달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또래는 매우 중요한 정서적 지지의 자원이 되기 때문이다(김계현·김동일·김봉환·김창대 외, 2003).

그런데 또래애착과 우울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결과가 모두 일치하지는 않는다. 대개는 또래애착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구자경, 2004; 신재은, 1999; 옥정, 1998; 유안진·이점숙·정현진, 2006; Vosk, Forehand, Parker & Rickard, 1982)를 나타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부모애착은 청소년 우울에 결정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aja, McGee & Stanton, 1992)

청소년의 우울의 요인으로 부모애착, 또래애착 이외에 주목할 변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사애착이다. 학교 교사와의 의사소통과 교사의 애정과 관심을 의미하는 교사애착은 여러 선행연구들(이은경, 2007; 구자경, 2004; Anderman, 2002; Catalano, Haggerty, Oesterle, Fleming & Hawkins, 2004; Jacobson & Rowe, 1999)에서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검증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대개 일관된 연구결과를 나타냈는데 교사와의 의사소통 수준이나 긍정적 관계는 우울 등의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애착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들어서야 청소년의 우울 등의 심리적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증되어 왔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학교 교사와의 관계는 즉 교사 애착 정도는 부모와 또래 이외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기존의 연

구들은 청소년기 우울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횡단 연구로 한 개인 안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울 등의 정신건강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되는지 밝히고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설명해 내는데는 한계가 있다. 횡단연구에서는 특정 시기에 학령대별로 구분한 집단의 우울 수준의 차이를 밝히지만 이는 엄밀히 볼 때 두 집단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학령이 증가할수록 우울 수준이 감소하거나 증가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반면 동일한 조사대상을 두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울 등의 변화 경향과 초기치 수준을 파악한다면 학령이 증가할수록 나타나는 변화를 실질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성별에 따른 우울 등의 정신건강 차이의 경우 대체로 일관된 연구 결과(여자 청소년들의 우울이 더 높음)를 보이고는 있으나,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속에서 함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다.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청소년기의 세부 시기에 따라 또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경우 개입 방안도 성별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에착이 청소년의 우울 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횡단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있는데 이들 연구들에서는 특정 시점에서의 영향력에 대해서 검증한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서의 이들 요인들에 대한 영향력만을 제한적으로 파악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시간에 흐름에 따라 이들 요인이 개인의 우울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개입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우울 수준의 변화에 관한 종단연구를 통하여 위에서 제기한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종단 변화 추이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의 우울 수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인 부모애착, 부모의 학대, 또래 애착 및 교사 애착 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첫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의 우울 수준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변화에 있어서 유의미한 개인차가 존재하는가?

둘째, 성별, 부모애착, 부모의 학대, 또래애착, 교사애착은 우울수준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초기치를 통제한 상태에서 성별, 부모애착, 부모의 학대, 또래애착, 교사애착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 패널 2,3,4,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2차년도를 기준으로 총 3,449명이다. 이중 남자청소년은 1,725명이고 여자청소년은 1,724명으로 남녀 성비가 5:5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청소년 패널조사는 층화 다단계 표집을 활용하여 12개 특별시/광역시/시도별로 지역별 층화를 하고, 12개 지역별 중학교 학년 학생 수에 비례해 지역별 목표 표본수를 할당한 후 목표 표본 n에 따라 학교 수와 학교를 결정하고, 추출된 중학교 2학년 학급 수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1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김성경, 2008). 본 연구에서 최종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의 특성은 2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표 1> 분석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구 분		빈도(%)
성별	남	1,594(50)
	여	1,594(50)
가족구조	친부모	2,887(92.9)
	친부	61(2.0)
	친모	118(3.8)
	친부+양모	11(0.4)
	친모+양부	12(0.4)
	친부모 모두 사망	9(0.3)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10(3.6)
	100~200만원 미만	503(16.3)
	200~300만원 미만	806(26.1)
	300~400만원 미만	785(25.4)
	400~500만원 미만	384(12.4)
	500만원 이상	504(16.3)

2. 측정도구

1) 우울

본 연구는 중3시기부터 고3시기에 이르기까지 시간에 따라 우울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변화함수를 추정하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부모애착·부모의 학대·또래애착·교사애착의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중학교 3학년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관련된 문항에 대하여 반복 조사한 것이다.

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한 문항은 아래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이 문항들은 모두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네 시점(중3, 고1, 고2, 고3 시점)에서의 신뢰도 계수 α 값은 각각 .824, .829, .832, .836으로 분석되었다.

<표 2> 우울 측정 문항

문항번호	문항내용
49-3-10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49-3-11	나는 모든 일에 걱정이 많은 편이다
49-3-12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49-3-13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로울 때가 있다
49-3-14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49-3-15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2) 우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우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요인 이외에 세 차원의 요인 - 부모요인과 또래요인, 교사 요인 - 을 검증하였다. 부모요인은 부모 애착 변수와, 부모의 학대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애착은 부모의 애정과 관심, 이해, 대화와 의사소통에 대해 청소년이 지각한 정도를 말한다. 부모애착은 부모의 나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측정하는 것으로 아래에 제시된 총 6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부모애착을 측정하는 변수들의 신뢰도 계수 α 값은 .882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요인의 두 번째 변수인 부모의 학대는 부모님으로부터 욕설과 폭력을 당한 경험을 의미한다. 부모의 학대는 2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자료에서 부모요인으로 사용된 문항은 아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의 학대를 측정하는 변수들의 신뢰도 계수 α 값은 .834로 나타났다.

<표 3> 부모요인 문항

문항 번호	변수명	문항내용
33-1	부모애착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3-2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33-3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33-4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33-5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33-6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33-14	부모의 학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
33-15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

다음으로 또래요인인 또래애착 변수는 친한 또래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말한다. 또래애착 변수 측정은 아래의 4문항으로 구성된 아래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또래애착을 측정하는 변수들의 신뢰도 계수 α 값은 .829로 나타났다.

<표 4> 또래요인 문항

문항번호	변수명	문항내용
37-3-1)	또래애착	나는 그 또래들과 오랫동안 또래로 지내고 싶다.
37-3-2)		나는 그 또래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37-3-3)		나는 그 또래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7-3-4)		나는 그 또래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교사요인인 교사에착 변수는 학교 교사와의 의사소통과 교사의 애정과 관심으로 구성된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교사에착을 측정하는 변수들의 신뢰도 계수 α 값은 .725로 나타났다.

<표 5> 교사요인 문항

문항번호	변수명	문항내용
35-4	교사에착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35-5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신다.
35-6		나는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싶다.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설정된 부모애착, 부모의 학대, 또래애착, 교사에착 변수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 α 값은 제일 낮은 것이 .725(교사에착 변수)로, 제일 높은 것이 .882(부모애착 변수)로 나타나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청소년 패널 데이터로서 다년간 동일한 측정도구가 일관되게 사용되어 왔고, 많은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변수 측정을 위해 공통된 문항을 사용해왔다는 점에서 각 변수들에 대한 측정도구들의 안면 타당도(face-validity)는 확보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3에서 고3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우울 수준의 변화를 추정하고, 변화에 있어 개인차를 파악하기 위하여 HLM6을 사용하여 다층모형 분석을 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우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변화함수를 추정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우울의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검증한다.

$$1\text{단계} : Y_{ti} = \pi_{0i} + \pi_{1i}T_{ti} + e_{ti}, \quad e_{ti} \sim N(0, \sigma^2)$$

1단계식에서 Y_{ti} 는 각 개인(i)의 시점 T에서의 우울 측정치를 나타낸다. T_{ti} 는 각 개인별 측정 시점에 따른 시간을 코딩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등 패널 2차년도의 시점을 초기 시점으로 정하였다²⁾. 따라서 2차년도의 초기 시점을 0으로 코딩하였다. 초기 시점이 0으로 코딩된 경우 π_{0i} 는 시간이 0일때(즉, 중등 2차년도 조사시점-중3) 각 개인의 초기치를 나타내고 π_{1i} 은 변화율을 의미한다. e_{ti} 는 시점t에서의 각 개인이 갖는 오차이다. $e_{ti} \sim N(0, \sigma^2)$ 는 평균이 0, 공분산 σ^2 을 갖는 정상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의미한다.

$$\begin{aligned} 2\text{단계} : \pi_{0i} &= \beta_{00} + r_{0i} \\ \pi_{1i} &= \beta_{10} + r_{1i} \end{aligned}$$

2단계 식에서 β_{00} 와 β_{10} 은 각각 우울 초기치와 변화율의 전체 평균값을 의미한다. r_{0i} 와 r_{1i} 는 우울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서의 각 개인의 무선효과를 나타낸다. 이 무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강하게 나타난다면 우울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수를 추가하여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차를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전체 청소년의 우울이 시간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고 무선효수와 분산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그 후 우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설정된 성별, 부모애착, 부모의 학대, 또래애착, 교

2)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우울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2차년도 조사부터 포함되었기 때문에 초기 시점을 2차년도(중3시기) 조사로 설정하였다.

사애착 변수 5개를 투입하여 우울 초기치와 변화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5개의 독립변수를 투입하면 2단계 식은 아래의 식이 된다.

$$\pi_{0i} = \beta_{00} + \sum_{g=1}^k \beta_{0g} \mathbf{x}_{0gi} + r_{0i}$$

$$\pi_{1i} = \beta_{10} + \sum_{g=1}^k \beta_{1g} \mathbf{x}_{1gi} + r_{1i}$$

우울 초기치와 변화율 사이의 분산-공분산 T 는 다음과 같다.

$$T = \begin{bmatrix} T_{00} & T_{01} \\ T_{10} & T_{11} \end{bmatrix}$$

여기서 τ_{00} 과 τ_{11} 은 각각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을 나타낸다. $\tau_{01} - \tau_{10}$ 는 초기치와 변화율의 공분산을 나타낸다. 이 값을 표준화시키면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계수(τ_{10}' 으로 표시)가 된다.

IV. 연구결과

1.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중3부터 고3까지 4차년에 걸쳐 조사된 청소년의 우울 수준과 부모애착 정도, 부모의 학대정도, 또래 애착 정도, 교사 애착정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아래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남자청소년의 집단의 연도별 우울 점수 평균값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분포를 보인 반면, 여자청소년의 집단의 연도별 우울 점수 평균값은 중3에서 고1때까지는 감소하다가 고1에서 고2때까지는 증가하고, 다시 감소하였다. 이것은 남녀 청소년 집단별 우울 점수의 평균을 시기에 따라 살펴본 것이기에 이 평균값들의 분포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경향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평균 우울 수준은 매 시점에서 여자 청소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의 경우 여자청소년 집단이,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정도는 남자청소년 집단이, 또래 애착의 경우 여자청소년 집단이, 교사애착의 경우 남자 청소년 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측정된 우울 값은 종단자료로서 매 시점 분석대상수가 동일하지 않다. 중3(우울1) 때에는 3,178명이 응답하였으나, 고1 때에는 3,112명이, 고2 때에는 3,121명이, 고3 때에는 2,958명이 응답하였다. 다층모형에서는 모든 개인이 모든 측정 시점에서 모두 응답한 완전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홍세희, 2007). 따라서 불완전 사례도 자료분석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본 연구자는 부모애착, 부모의 학대, 또래애착, 교사 애착 변수는 4년의 측정기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우울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이들 요인들은 2차 시점인 중3 시기의 값을 사용하였다.

<표 6> 우울, 부모요인, 또래요인, 교사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수	전체		남		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우울1	2.69	.773	2.60	.781	2.79	.753
우울2	2.66	.764	2.56	.761	2.76	.753
우울3	2.67	.768	2.55	.753	2.79	.763
우울4	2.61	.768	2.52	.763	2.70	.772
부모애착	3.42	.759	3.33	.746	3.51	.761
부모의 학대	1.76	.935	1.84	.972	1.68	.889
또래애착	4.16	.671	4.08	.706	4.25	.623
교사애착	2.61	.824	2.66	.801	2.56	.844

[우울점수해석: 점수값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더 높음]

2. 다층모형

청소년의 우울 수준의 변화를 추정하고, 그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추정하기 위해 선형모형을 적용하였다. 우울은 앞서 측정도구에서 제시한대로 우울수준을 측정하는 6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계산하였고, 시간 값은 중3, 고1, 고2, 고3을 각각 0,1,2,3으로 코딩하였다.

1) 무조건 모형

우선 독립변수가 투입되지 않은 무조건모형(unconditional model)으로 본 자료를 분석하였다. 무조건 모형을 통해 우울 초기치에서의 분산과 변화율에서의 분산의 유의성이 검증되어야 비로소 독립변수를 투입하는 것이 의미있기 때문이다.

<표 7> 무조건 모형 분석 결과

구분		전체	
		계수	표준오차
고정효과 (Fixed Effect)	β_{00}	2.697***	0.013
	β_{10}	-0.024***	0.005
무선효과 (Random Effect)	τ_{00}	0.285***	
	τ_{11}	0.018***	
상관계수	τ_{10}	-0.313	

<표 7>에 의하면 청소년의 우울 평균 초기치(중3시기)는 2.697이며 평균 변화율은 -0.024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초기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청소년의 우울수준 초기치가 0일 것이라는 영가설은 기각되는 것이다. 또한 평균변화율이 부적으로 유의하므로 청소년의 우울수준이 중3에서 고3까지 4년동안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인 τ_{00} 과 τ_{11} 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우울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우울 수준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독립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계수인 τ_{10} 이 부적관계를 보이므로, 중3때 우울 수준이 높았던 청소년은 낮았던 청소년에 비해 그 이후 우울 감소율이 더 작음을 알 수 있다.

2) 조건모형

앞서 연구결과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년의 우울 수준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부터는 청소년의 우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검증되어 온 성별, 부모애착, 부모의 학대, 또래애착, 교사에착 변수들이 시간에 흐름에 따라 청소년의 우울 수준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조건모형 1단계와 2단계 모형에 대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1단계 : Level-1 Model

$$Y_{ti} = \pi_{0i} + \pi_{1i}(\text{시간}) + e_{ti}, \quad e_{ti} \sim N(0, \sigma^2)$$

2단계 : Level-2 Model

$$\pi_{0i} = \beta_{00} + \beta_{01}(\text{성별}) + \beta_{02}(\text{부모애착}) + \beta_{03}(\text{부모의 학대}) + \beta_{04}(\text{또래애착}) \\ + \beta_{05}(\text{교사애착}) + r_{0i}$$

$$\pi_{1i} = \beta_{10} + \beta_{11}(\text{성별}) + \beta_{12}(\text{부모애착}) + \beta_{13}(\text{부모의 학대}) + \beta_{14}(\text{또래애착}) \\ + \beta_{15}(\text{교사애착}) + r_{1i}$$

청소년의 우울 수준 초기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성별, 부모애착, 부모의 학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독립변수 중에서 성(gender)은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이 우울수준 초기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 변수도 우울수준 초기치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초기치는 낮은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중 마지막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 변수는 부모의 학대 변수로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대가 심할수록 우울 초기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초기치에 대한 성별·부모·또래·교사 요인 효과

고정효과	구분	계수	표준오차
B00	절편	2.771***	0.104
B01	성별	0.243***	0.024
B02	부모애착	-0.112***	0.019
B03	부모의 학대	0.110***	0.014
B04	또래애착	-0.008	0.019
B05	교사애착	0.010	0.016

한편 우울 수준의 변화율에는 부모애착 변수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애착 수준이 높을수록(부모와의 긍정적인 애착관계를 맺을수록) 우울 감소율이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부모애착이 우울의 초기치와 강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으므로 해석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부모애착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우울 초기치가 낮고, 초기치가 낮음으로 인하여 변화율이 더 강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초기치를 통제한 상태에서 변화율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에 대해 추정해보았다.

<표 9> 변화율에 대한 성별·부모·또래·교사 요인 효과

고정효과	구분	계수	표준오차
B00	절편	-0.011	0.045
B01	성별	-0.002	0.010
B02	부모애착	0.015†	0.008
B03	부모의 학대	-0.010	0.006
B04	또래애착	-0.006	0.008
B05	교사애착	-0.008	0.007

†: <.1수준에서 유의

초기치의 영향을 통제한 결과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애착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9>와 <표10>의 결과를 함께 비교해보면 초기치를 통제하기 전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부모애착 변수는 초기치 통제 후에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계수 부호도 반대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우울 감소율이 더 큰 것이 아니라 초기치 차이 분산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나면 부모애착이 우울 변화에 미치는 효과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초기치를 통제한 상태에서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한 결과 성별과 부모의 학대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에 따른 청소년의 우울 수준 변화율에 있어 유의미한 큰 개인차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 개인차를 성별과 부모의 학대 변수가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결과를 해석해보면 시간에 따라 청소년의 우울 수준은 감소하고 있으나 변화율은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또한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할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우울 감소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을 보면 초기치는 변화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치 우울 값(중3 시기)이 높을수록 감소율은 적고, 우울 초기치 값이 낮을수록 감소율은 더 큰 경향을 보인다.

<표 10> 초기치 통제된 상태에서 우울 변화율에 대한
성별·부모·또래·교사 요인 효과

고정 효과	구분	계수	표준오차
y10	절편	0.599***	0.042
y11	성별	0.050***	0.008
y12	부모애착	-0.009	0.006
y13	부모의 학대	0.016**	0.00
y14	또래애착	-0.00	0.007
y15	교사애착	-0.006	0.005
y16	초기치	-0.218***	0.006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 파악하고, 성별·부모·또래·교사 요인이 청소년의 우울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모형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핵심적인 연구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의 우울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우울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3, 고1, 고2, 고3으로 학령이 증가하면서 우울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우울이 감소

하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학령이 높아질수록 심해지는 학업 스트레스나 오늘날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스트레스를 고려할 때 이는 다소 의외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로 할 수 있다. 대개 학령이 증가할수록 당연히 우울 수준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예측이나 주장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자원이나 개인의 탄력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부분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청소년 개인간의 우울 수준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서 유의한 큰 차이를 나타내고 그가 맺고 있는 관계의 질에 따라 우울 수준은 매우 다르며 변화양상도 다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 미국의 청소년 건강에 대한 종단조사 자료(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를 사용한 연구결과(Sarah, Brown & Glen, 2006)와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즉, 미국 청소년의 우울 변화경향에 대한 7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종단연구 결과 남녀 청소년 모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울이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우울 수준을 학령에 따라 구분하여 비교한 기존의 횡단연구에서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높은 수준의 심리적 증상을 보이는 것(구자경, 2004; 이은경, 2007)과는 다른 결과³⁾이다. 그러나 기존의 횡단연구결과는 다른 연령의 대상을 동일한 시점에서 비교 분석한 것으로 청소년 우울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결과는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4년에 걸친 반복조사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우울 변화를 파악하였으므로 기존 횡단연구의 결과보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시간에 따른 청소년의 우울 감소 경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개입 방안 모색은 물론 높은 우울 수준을 보이는 청소년 집단에 대한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우울에 대한 성별·부모·또래·교사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초기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우선 중3시기에 측정한 우울 초기치에 대해서는 성별과 부모애착, 부모의 학대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3) 구자경(2004)의 연구에서 심리적 증상은 우울을 측정하는 12문항, 불안 측정 10문항, 적대감 측정 6문항으로 구성된 것으로써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SCL-90-R을 사용한 것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패널 조사에 있는 우울 측정 문항 6개를 사용한 것으로 학령에 따른 청소년 우울 연구 결과의 차이는 측정도구의 차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증되었다. 우선 성별 변수부터 살펴보면 초기치인 중 3시기에 있어 여자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남자청소년의 그것에 비해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치에 있어서 여자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더 심각하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울증의 경우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에게서 유병률과 발병률이 높고(Mash&Barkley, 2001; Nolen -Hoekse ma, & Girgus, 1994;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윤혜미·박병금, 2005), 여자청소년의 경우 우울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며(조수철·이영식, 1990; 이현만·한성희, 1996) 불안·정신증 또한 더 많이 경험한다(장봉우·김태완·조경옥·김용인, 1997). 또한 여자청소년에 비해 남자청소년의 정신건강이 더 양호하다는 기존 연구(박소영, 2000; 윤진·최정훈, 1999; 이은경, 2007; 장봉우 외 1997; 최성순, 2001)에서 간접적으로 여자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더 심각함을 유추할 수 있다.

부모애착과 부모의 학대 변수 역시 우울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초기치 값은 낮으며,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에 있는 청소년일수록 우울 초기치 값은 높은 경향이 있다. 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양돈규·임영식, 1998; Cicchetti & Garnezy, 1987)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전체청소년에 대해서 우울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모-자녀간의 애착을 높이고, 부모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학대를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도입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통해 초기치인 중 3 시기에 있어 청소년들의 우울 수준은 개인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울 수준이 높은 청소년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높은 우울 수준을 보이는 청소년들에 대해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상담과 지원하는 자원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높은 우울 수준이 비행이나 자살 등의 사회문제 행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박현숙, 2007; 박병금, 2007; 오현아·박영래·최미혜, 2008; 이현지·김명희, 2007; 엄태완, 2008; 정영주·정영숙, 2007; Chiles, Miller, & Cox, 1980; Craighead, 1991; Kandel, Ravis, & Davies, 1991; Peter, Paul, & John, 1994)을 고려해볼 때 우울 수준이 높은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방 차원의 접근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우울 수준의 변화율 대한 성별·부모·또래·교사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부모애착 변수만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은 초기치를 통제하기 전의 상태에서 분석된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부모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감소율이 클 것이라고 해석하는데는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4년간의 청소년 우울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부모·또래·교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초기치를 통제한 상태에서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과 부모의 학대가 초기치 통제 상태에서 우울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의 경우 그리고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할수록 우울 감소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여자청소년의 우울 초기치는 남자 청소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지만 초기치를 통제한 상태에서 본 우울 감소율은 여자 청소년이 더 크다는 점은 학령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와 같은 우울의 발생 요소에 대한 대처 자원(능력) 또는 탄력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울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해 볼 수 있다. 반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초기치 통제한 상태에서 시간에 따른 우울 감소율이 더 적은 것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우울의 발생 요소에 대한 대처 자원이 적거나 우울에 대한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해석상 가능성은 추후에 검증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런 한계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울 개입 프로그램에 있어서 최소한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은 필요하다.

초기치를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할수록 우울 감소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후기 청소년기로 갈수록 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가 우울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지 않고 오히려 다른 요인들이 그 효과를 대체하여 우울 감소율을 크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청소년 초기에서 후기에 이르면 부모를 애착인물로 포기하는 과정이 완성된다고 한 Hazen et al.(1991)의 연구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즉,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오히려 부모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크게 감소하고 그 자리를 대체할 긍정적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찾아 대체하기 때문에 우울의 감소 정도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장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우울 문제가 발생하면 회복이 쉽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고(배정미, 2006), 이후 생애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다른 문제 행동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우울수준을 낮추고 우울로 인해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조기 우울 개입과 부모-자녀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이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V.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에의 함의점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의 우울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부모·또래·교사와의 관계의 영향력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청소년의 우울에 개입할 수 있는 실천적이면서도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함의를 얻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음을 밝히며, 이러한 제한점들은 청소년들의 우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이 도전하여 극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중에 학교 차원에서의 변수로는 교사와의 애착관계만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서 교사 애착은 우울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교육 체계의 약화와 과도한 입시스트레스 등으로 학교 교사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줄어든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가 갖는 다른 요인들은 향후 연구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횡단연구에서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학교의 물리적 환경(정일출, 1997)이나 학교 풍토 등의 다양한 학교관련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면 교육 정책 측면에서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가 갖는 부정적 영향 변수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기존연구들을 통해 비행또래의 영향 등 또래관계에 있어서의 부정적 영향은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함이 입증되는 만큼(배문조·전귀연, 2001) 청소년의 우울 변

화에 있어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에서는 또래관계를 또래애착의 긍정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비행또래의 양과 접촉 빈도 등 비행또래들과의 관계를 포함시켜 또래관계의 역동성이 우울 변화에 미치는 영향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연구에서는 우울에 있어서의 남녀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탐색과 검증이 필요하다. 즉, 우울 수준에 있어서의 성별차에 대한 사후 해석이 아닌 성별차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남녀에 따른 차별화된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선형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에 대해 Piecewise나 비선형 모형을 적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청소년들의 우울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이 어떤 것인지 비교하여 밝힐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우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부모요인과 또래 및 교사 요인을 시간 독립적 변수로 취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를 시간 의존적 효과로 처리하여 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차가 심한 우울 수준을 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초기치와 마지막 단계의 값을 고저로 구분하여 집단의 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보다 세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우울 문제에 대해 시기와 수준에 따라 다양한 개입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금주·문은영(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6권 제2호, pp. 29-43.
- 구자경(2004).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 학교관련변인을 중심으로 -.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2호, pp. 217-239.
-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2006 청소년백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김정원(1993).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영(2000). 보호관찰청소년의 비행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및 부모양육행동의 영향력. *한국아동복지학*, 제10권, pp. 10-31.
- 박소영(2000).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신라대 석사학위논문.
- 박종효(2007). 초·중·고등학생의 정신건강 수준과 변화 추이 분석: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논문집, pp. 209-230.
- 배정미(2006).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 *정신간호학회지*, 제15권 제3호, pp. 308-317.
- 양돈규·임영식(1998).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4권 제1호, pp. 55-74.
- 윤혜미·박병금(2005).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관련 요인 - 생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제28권, pp. 133-164.
- 이옥석·안정자(1996). 고등학교 남학생의 가족 환경지각과 정신건강. *전북대논문집*, 제41권, pp. 215-227.
- 이은경(2007). 청소년의 행복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 - 정신건강 측면을 중심으로 -.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은희(2003). 남녀 성별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의 정신건강 수준과 그 결정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15권, pp. 52-76.
- 이현만·한성희(1996).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의학*, 제7권 제2호, pp. 167-178.
- 윤진·최정훈(1999).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와 그 대처행동양식. *한국심리학회지*, pp. 16-35.

- 장봉우 · 김태완 · 조경옥 · 김용인(1997). 농촌지역 중학생들의 체력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연구소 논문집, 제9권 제1호, pp. 75-88.
- 정영주·정영숙(2007).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우울, 인지적 왜해 및 또래지지 간의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20권 제1호, pp. 67-88.
- 정일출(1997). 과밀 및 소음환경이 중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조수철 · 이영식(1990). 한국형 소아우울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제29권, pp. 943-955.
- 최성준(2001). 중학생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정신건강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태진(2004).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정신건강 부모애착과 수평적·수직적개인주의 집단주의 성향의 상호관계와 그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15권 제2호, pp. 117-152.
- Biederman, J., Faraone, S., Mick, E., & Lelon, E.(1995). Psychiatric comorbidity among referred juveniles with major depression: Fact or artifact?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Vol. 34 No.5, pp. 579-590.
- Cicchetti, D., & Garnezy, N. (1993). Prospects and promises in the study of resili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 5, pp. 497-502.
- Chiles, J. A., Miller, M. N., & Cox, G. B.(1980) Depression in an adolescent delinquent population. *Archives General Psychiatry*, Vol. 37, pp. 1179-1184.
- Craighead, W. E.(1991). Cognitive factors and classification issues in adolescent depression. *Jo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0 No. 2, pp. 311-326.
- Jacobson, K. C., and Crockett, L. J.(2000). Parental monitoring and adolescentadjustment: An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 10 No. 1, pp. 65-97.
- Kandel, D. B., and Davies, M.(1986). Adult sequelae of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Archives og General Psychiatry*, Vol. 43, pp. 255-262.
- Kremen, A. M., and Block, J. (1998). The roots of ego-control in young adulthood: Links with parenting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5, pp. 1062-1075.
- Keenan-Miller, D., Hammnen, C. L., & Brennan, P. A.(2007). Health outcomes

- related to early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 41, pp. 256-262.
- Mash, E. J., & Barkley, R. A. (2001). *Child Psychopathology* (1st ed.). NY: The Guilford Press.
- Nolen-Hoeksema, S., & Girgus, J. S. (1994). The emergence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during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Vol. 115, pp. 424-443.
- Sarah, O. Meadows, J. Scott Brown & Glen, H. Elder Jr.(2006) Depressive Symptoms, Stress, and Support: Gendered Trajectories From Adolescent to Young Adulthood,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5, pp.93-103.
- Sawyer, M. G., Sarris, A., Baghurst, P. A., Cornish, C. A., & Lakocy, R. S.(1990). The prevalence of emotional and behavior disorders and patterns of service utilizat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Vol. 24, pp. 323-330.
- Schonert-Reichl, K. A., & Muller, J. R. (1996). Correlates of help-seek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5, pp. 705-732.
- Vosk, B., Forehand, R., Parker, J.B., & Richard, K.(1982). A Multitime method comparison of popular and unpopular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8, pp. 571-575.

ABSTRACT

The Effects of Parents, Peers and Teachers upon Changes in Mental Health on the Part of Adolescents : A Focused on Depression and Anxiety

Cho, Jeong-A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changes in the patterns in adolescent depression, and to test the effects of parents, peer, and school teachers on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se changes. For the current study, the longitudinal data taken from the Korea Youth Panel were analyzed using multi-level modeling.

The first result of the analysis revealed that adolescent depression decreased significantly. The depression level of female adolescents is higher than that of males on the initial status (middle school 3th grade). The second result of the analysis is that gender and degrees of parental abuse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the initial status. However parent attachment showed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s on the initial status. The third result of the analysis is that controlling for the initial status according to gender and parental abuse had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the change rate. These results, have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and prevention strategies which can decrease the levels of adolescent depression

Key Words : adolescents' depression, attachment of parents, parental abuse, attachment of peers, attachment of teachers, multi-level model

투고일 : 3월 16일, 심사일 : 6월 5일, 심사완료일 : 6월 5일

* Postdoctoral, BK21 Graduate of Social Welfare, Ewha University